

오감이 즐겁다, 환상의 스피드에 빠져봐~



'F1의 꽃' 레이싱걸

레이싱 걸들이 역사적인 F1 코리아그랑프리 개막을 축하하며 목포시 평화광장앞에 전시된 페라리 등 세계 유명 스포츠카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.



축하 불꽃놀이

화려한 불꽃 소가 F1 개막을 축하하며 22일 밤 목포시 하당 신도심의 밤 하늘을 수놓고 있다.



외국인 커플 응원

22일은 연습주행만 열렸지만 한 외국인 커플이 자신이 응원하는 르노팀을 위해 국기와 티셔츠를 입고 나오는 등 벌써부터 열기가 달아 오르고 있다.

사진=김진수기자 jeans@



몰려드는 관중들

대회 첫날인데도 영암군 삼호읍의 F1 경주장 입구는 국내·외에서 모여 든 관람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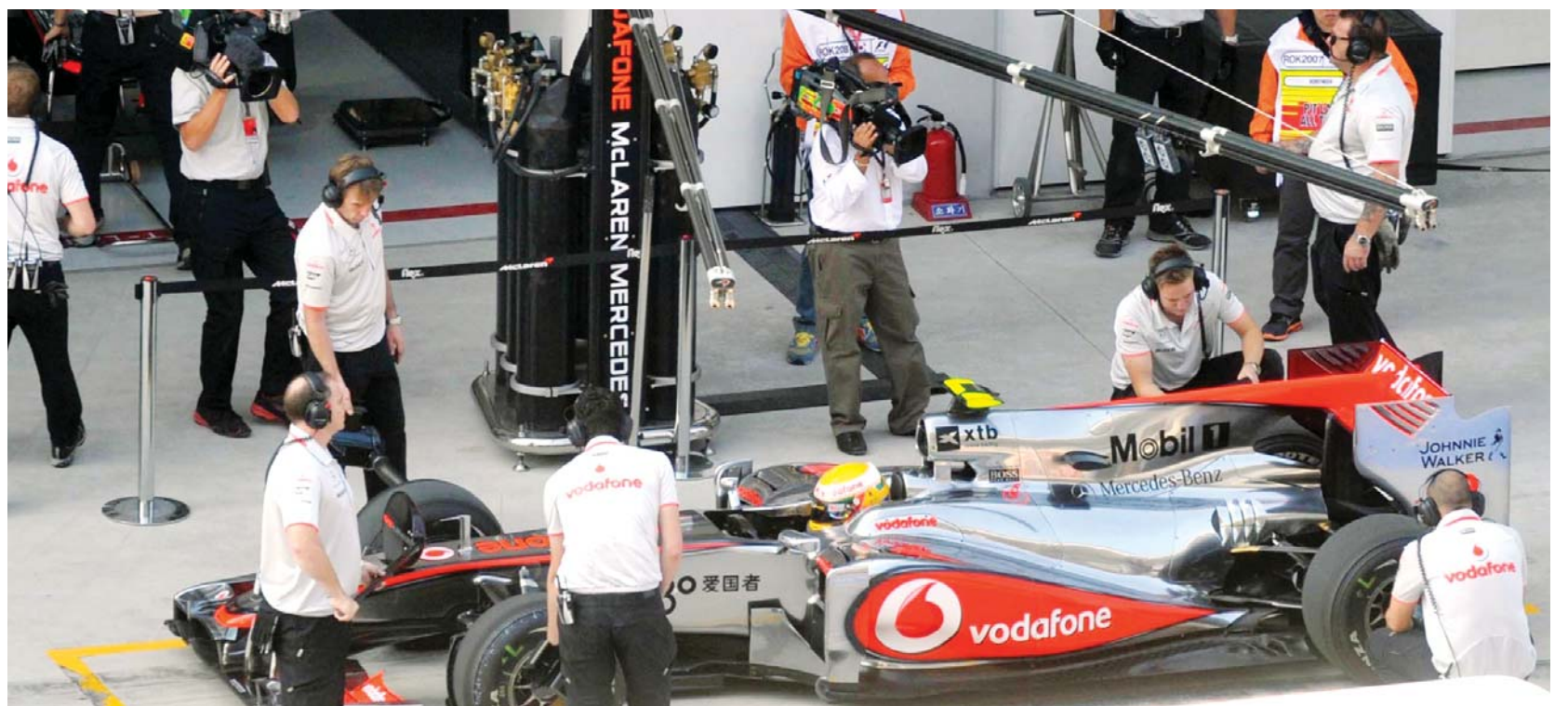
차지사, 페라리팀 방문

영암서킷을 방문한 박준영 전남지사가 페라리팀 관계자로부터 페라리팀과 F1 머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.



F1맞춰 국제요트대회

F1대회에 맞춰 22일 막을 올린 '2010 전남~제주 국제 요트 레이싱'에 참가한 요트들이 출발을 앞두고 목포 평화광장 계류장에 정박해 있다. 첫 대회인 이번 요트대회에는 12개국에서 40여척의 요트와 200여명의 선수가 참가했다.



머신 점검

맥라렌팀 스태프들이 22일 오전 영암서킷의 피트스톱(차량 정비소)에서 첫 연습주행에 앞서 머신을 점검하고 있다.